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1일 화요일 음 5월 9일 (1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9℃, 낮 최고기온은 23~24℃가 되겠다. 오전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동부지역 중산간 이상에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5:24 / 해짐 19:44	달뜸 13:24 / 달짐 01:25
물때	만조 05:31 / 18:19	간조 12:14 / 00:0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8/23℃
모레	구름 많음	19/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매우높음

월드뉴스

인니 시나붕 화산 분출, 화산재 7㎞ 치솟아

규모 5.0 안팎 지진도 발생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분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의 시나붕 화산이 또다시 분출해 화산재가 산 정상에서 7㎞까지 치솟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도로가 모두 화산재로 뒤덮여 지방 정부가 밤사이 청소 차량을 대거 동원했다.

1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8분(현지시간) 북수마트라주의 시나붕 화산에서 화산재 기둥이 치솟았다. 해발 2460m의 시나붕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개 활화산 가운데 하나다.

재난 당국은 올해 5월 20일 시나붕 화산의 경보단계(1~4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 바 있다.

3단계 경보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은 시나붕 화산 정상 반경 3㎞ 이내, 남동 구역 5㎞ 이내, 북동 구역 4㎞ 이내 접근이 금지돼 있다.

지방 정부는 도로 위를 덮은 화산재가 차량 운전에 위험하다며 청소 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했다.

시나붕 화산 분출로 2014년에는 16명, 2016년에는 7명이 숨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관광도시인 욕야카르타 인근 므라피 화산(해발 2968m)은 같은 날 오전 3시 31분께 1㎞에 이르는 수증기를 뿜어냈다.

므라피 화산의 경보단계는 2단계이며 정상 3㎞ 이내 접근이 금지돼 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5.0 안팎 지진도 잇따라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백록담 주소

강 상 주
전 서귀포시장

민선 서귀포시장 시절에 주말 새벽이면 주로 영실코스를 택하여 윗세오름까지 등반을 자주 하곤 하였다. 영실매표소에 제주도청소속의 국립공원직원이 "한라산 땅 주인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하면서 그냥 입장시켰다. 예의상 그러는거구나 하였다. 그런데 다음에도 그러기에 속으로 왜 그럴까 생각되었다. 깊은 생각없이 한라산 꼭대기나 백록담은 당시 4개 시·군이 균등분할된 것이 아닐까 정도로만 여겨졌었다. 그래서 이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제주는 조선시대 태종(이방원)때 조선8도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제주목·정의현·대정현 등 3읍체제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후 약 500년간 조선말까지 이 체제가 지속되었다. 그 이전에는 소위 탐라국 또는 고려시대에는 탐라·제주(군 또는 현)에 15개 현(나중에 리)등이 있었다한다. 몽고 강점기에는 원나라의 탐라총관부와 고려정부의 제주군(현)등 2개의 행정기구가 있어서 제주토착민들은 고달픈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그러면 당시의 토지 경계는 어땠을까. 고려 후기 때 김구 판관이 부임하여 밭 경계로 돌담을 쌓도록 하여 애매하였던 땅의 경계가 확실해졌다 한다. 부수적으로 돌담은 가축이나 들짐승의 침입도 방지되고 바람도 막아주고 밭안의 돌들을 주워다가 담이나 벽해(돌무더기)를 만드니 밭의 생산성도 증가되어 그야말로 일석사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 간의 경계도 바다의 경우는 고래나 사람의 사체가 밀려 올라왔을 때 어느 마을에서 치우느냐가 하나의 관습처럼 되었다. 육지간의 경계는 제주의 수령(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들이 마을시찰 할 때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가마를 메는데 어느 구간까지 메느냐가 마을경계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경계는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측량이 실시되기 전 까지 관습적으로 지속된 것 같다. 토지에 대한 주소부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고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은 일제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경 실시되었다.

제주의 수령들은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상피제도에 의하여 대부분 육지사람들이었는데 처음 부임하게 되면 한라산에 올라가 국태민안과 제주도민들의 안녕을 빌었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라산의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가끔 동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체를 치워야하는데 누가 치우냐가 문제였다. 제주목사는 직급이 높은 정3품이어서 빠지고 결국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이 처리해야 하는데 둘 다 종6품 계급이었다. 같은 계급이지만 호봉(동일직급에서 승진연한에 따른 보수체계)이 높은 대정현감은 빠지고 정의현감이 떠맡게 되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체를 가마니에 돌돌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며칠간 내려와야 하는데 매우 고단하였을 것이다. 정의현감은 관내 토평리 사람들을 시켰고 아마도 한라산 남벽으로 내려와서 돈내코 코스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관례가 되어 계속하게 된다. 이런 고생 끝에 토지측량 시 백록담 6만 여 평은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가 되었고 백록담 남서쪽의 1950m 한라산 최정상은 서귀포시 서홍동·동홍동·토평동으로 삼분할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 우스게 소리지만 "한라산 땅 임자니까 요금 받을 수 없지요"가 비로소 이해되었다.

열린마당

자전거 사고, 만약을 대비하세요

김 봉 효
제주도 회계과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가족 단위나 동호회별로 자전거를 타면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뜻한 날씨가 주는 상쾌한 기운과 같이 한다는 유대감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와 필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 후 보험을 통해서 신체·재물의 피해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할 시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중요한 점은 타인에게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할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소액으로 가입 가능하니 하나 정도 가입해 두면 좋다.

두 번째, 자전거 보험이다. 자전거 보험은 제주도민이면 가입절차나 비용 없이 사고 발생시 각 행정시에 신청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피해와 본인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니 담보범위와 약관 사항을 알아두면 좋다.

세 번째, 영조물손해배상공제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관리상·시설상의 하자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위 방법 외에도 사고 유형별에 따라 여러 가지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상기한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전거 사고 후 어느 정도 피해 대비는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청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사고 후 보상받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건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관련 법 준수 및 자전거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 개선도 중요하다.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한걸음, '탄소포인트제'

김 민 정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모든 국가가 수십년전부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대해 강조했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구는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각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세계 주요도시가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갈 시대인 것이며, 우리가 간과했던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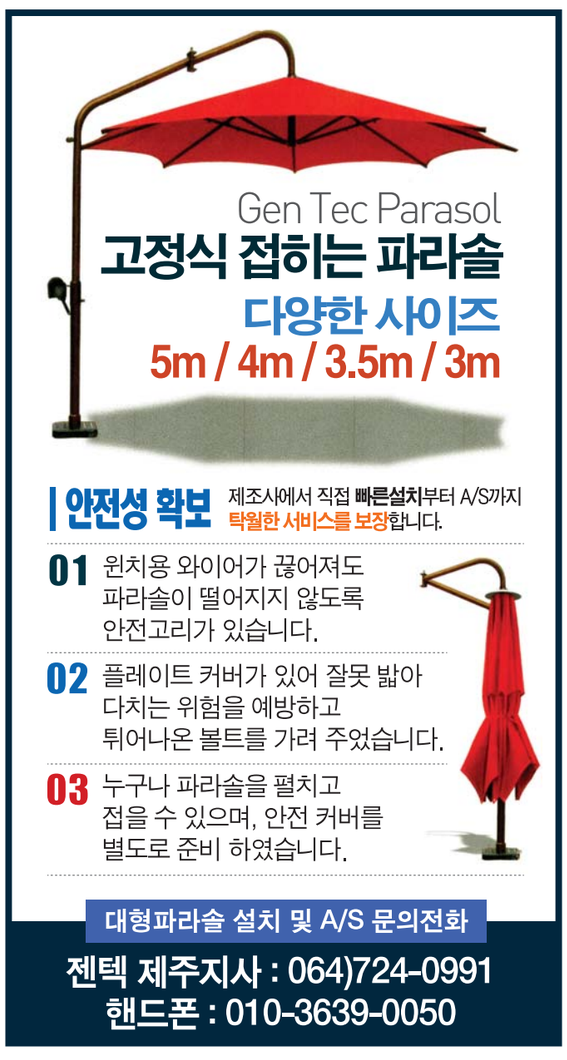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쉽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줄이면 5000원~1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고, 그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식량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었던 지구에게 도리어 이산화탄소라는 돌을 던지며 아픔만을 안겨줬다. 지금이라도 각자의 조그만 실천을 통해 지구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면 어떨까 싶다.



제주도정 소식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8245:19. 6. 16. ~ 7. 1.)
◈ 대상자 :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 부 : 금융기관, ATM(가상계좌이체, 카드결재), ARS 간편납부 등

세계제주인대회에 참가할 「해외거주 제주인」을 모집합니다.
[2019 세계제주인대회]
○ 기 간 : 2019년 10월 12일(토) ~ 10월 14일(월) / 3일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규 모 : 재외 제주도민, 도민 등 1,000여 명
○ 프로그램 : 환영의 밤, 화합의 밤,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비즈니스 교류, 청년 네트워크 교류, 이주사 전시회 등
* 탐라문화제(2019.10.9.~10.13.) 연계
○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을 초대하려고 하니, 주위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의 양식에 맞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19. 7. 15.까지
- 접수 및 문의 : hdh915@korea.kr (☎ 064-710-6247)

성명	거주국가(지역)	활동분야	근무처	직위

* 직접등록 : www.globaljejuin.com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9. 6. 11.(화) ~ 6. 20.(목)
○ 교육과정 : 일러스트 심화(1기) 등 6개 과정
○ 교육인원 : 과정당 30명 내외
○ 교육장소 : 도민정보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 교 육 비 :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edu.jeju.kr, 로그인 후 수강 신청)
○ 문의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710-7434, 도민정보센터 710-2376
○ 7월 교육일정

과 정 명	교육기간	요 일	시 간	비 고
일러스트 심화(1기)	7. 1.(월)~7.31.(수)	월, 수, 금	10:00~12:00	
GTQ 포토샵	7. 1.(월)~8.30.(금)	화, 목	10:00~12:00	자격증대비
스마트폰(실버6기)	7. 1.(월)~7.31.(수)	월~금	13:00~15:00	실버
엑셀 심화(2기)	7. 1.(월)~7.31.(수)	월, 수, 금	16:00~18:00	
포토샵 심화(2기)	7. 1.(월)~7.31.(수)	월, 수, 금	19:00~21:00	야간
파워포인트 심화(2기)	7. 1.(월)~7.30.(수)	화, 목	19:00~21:00	야간

제주시정 소식

탐라도서관 내진보강사업에 따른 임시휴관 안내
○ 휴관 기간 : 2019. 6. 15.(토) ~ 2019. 7. 31.(수) [47일간]
☞ 단, 본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휴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휴관 사유 : 탐라도서관 내진보강사업에 따른 건축(전기·소방)공사
○ 휴관 방법 : 전면휴관(모든 시설 이용불가)
○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
○ 문 의 : 제주시 탐라도서관(☎ 728-8361~8363)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 사진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 2019. 6. 1.(토) ~ 6. 20.(목)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공모주제 : 제주시 지역의 숨겨진 비경 및 자연풍광 등 미발표작 (3년 이내 촬영 작품)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품수 : 1인 4점이내
○ 출품규격 : 칼라 및 흑백 11× 14인치 인화 후 제출
○ 출품요령 : 신청서와 함께 작품뒷면에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것
※ 신청서와 출품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핫알림' 에서 내려 받기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광양9길 10 제주시청 공보실
○ 시상내역 : 대상 1점 , 금상 1점 , 은상 1점 , 동상 1점 , 입선 40점
○ 심사 및 발표 : 2019. 6월 중 개별통지 및 시홈페이지 게시
○ 문의사항 : 제주시 공보실 (☎064-728-2940~2)

2019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 근무기간: 2019. 7. 1.(월) ~ 7. 26.(금) 【20일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6. 10.(월) ~ 6. 14.(금) 18:00까지
- 방 법: 인터넷접수(제주시 홈페이지 ⇒ 알리미)
- 접수결과 및 추첨안내: 2019. 6. 17.(월)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모집인원: 164명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월~금요일(09:00~18:00) 주 5일 근무
※ 부서사정에 따라 근무요일・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 시정 현장업무지원(클린하우스 정리, 취약지 청소 등) 및 현장 조사활동 등
- 근 무 지: 제주시 본청,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 급여조건: 1일 77,600원(시간당 9,700원)
- 2019. 6. 5.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휴)학 중인 대학생
- 2019. 6. 5.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재(휴)학 대학생
※ 2019년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
○ 문 의: 제주시 총무과 (☎728-2044~5)